

## < 더 깊은 묵상 >

### 대용품을 받아들이는 일

여러 해 전에 공산주의가 팽배한 동구권에 들어가서  
최근 결혼한 한 여자가 와이오밍의 어느 작은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.  
그녀는 바쁜 농장일 때문에 쇼핑을 할 여유가 없어서  
큰 상점의 카탈로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.

상점에서 보낸 주문서 밑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혀있었습니다.  
'손님께서 주문한 상품이 없을 경우 다른 상품을 대신 보내드릴까요?'  
그녀는 낯선 사람이 적절한 대용품을 골라준다는 것이 썩 내키지  
않았지만,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며 그냥 '예' 라고 적었습니다.

며칠 후 회사에서 보내 준 소포 속에는 '죄송합니다만  
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남아 있지 않아 다른 상품으로 대신  
우송합니다.' 라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. 실망해서 포장을 풀어본  
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지불한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 
훨씬 더 좋은 상품이었습니다.  
그런 일이 있은 후 그녀는 주문서 밑에 적인 '대용품을 받겠느냐?'  
라는 질문에 늘 빨간 글씨로 '예' 라고 적었습니다.  
그상점이 그녀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 
신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.

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 
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대신 주시는 다른 것까지도  
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.  
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대답을 주신다는 것은 의심의  
여지가 없습니다.  
왜냐하면 그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로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 
계시기 때문입니다. 그 분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 
주시는 분입니다. 그 분이 '대용품'을 보내실 때는 우리가 상상했던  
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.

출처 -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춤 / W.B 프리먼